

就 任 辭



金 用 珪 教 授

금번 돌연히 대한치협부회장과 대한치협학술위원장에 당선하게 되어 전국치과협회 會員들에게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淺學非才로서 어떠한 公識에도 직접 참여를 원치 않았고, 또한 本人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한 많은 분이 있었는데도 구태여 학회장단에서 本人 더러 맡으라고 권하며 자기들은 사양했기 때문에 本人의 아닌 중책을 맡게 되어 이자리에 나오게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위원장이 해야할일은 많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주어진 사

업과 여건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집행해 나갈 것이며 그보다도 15個學會長이 계시고, 또한 學會마다 각각 부서가 있어서 학회운영을 완전히 실천하고 있겠음으로 本人으로서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우선 해야할 일중에 월간 「대한치협회지」를 좀더 잘 육성발전시켜서 名實相符한 「학술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學術誌는 前委員長 金東順博士가 애를 많이 써서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基礎的인 기반은 이루워 놓았으나, 현실적인 학회지 운영을 좀더 學界와 또는 臨床界를 망라한 共同體로 이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會誌편집을 맡은 사람만이 아니고, 會員 모두가 참여 의식을 가지고, 會誌운영에 임해주시면 發展하는 우리 學界가 더욱 힘찬 전진을 하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本協會誌야말로 명실상부한 齒科界의 상징으로서 보다 더 깊고 폭넓게 발전하게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本協會誌를 위해 애써주신 前會長, 副會長, 金東順博士등 그리고 物心으로 원조해주신 여러 關係業界에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계속적인 원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74. 4. 30

대한치협부회장 겸 학술위원장

김 용 관